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9

생활세금·공적지원·금융복지

세금과 지원을 같은 현금흐름에서 관리하고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한다.

학습자용 교재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이 교재를 사용하는 법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습 전 필수 기초'를 먼저 읽는다. 전체 학습은 기초 35분과 8개 Part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60분 핵심 학습도 왜 배우는지·개념의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고 사례 수를 줄여 진행한다.

학습 목표

- 소득·소비·재산·이전 과정의 세금을 구분한다.
- 원천징수와 최종 세액 확정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 지원의 대상·소득·재산·가구·증빙·신청 요건을 확인한다.
- 기준일·공식 출처·상담 기록을 남겨 오래된 정보를 피한다.

학습 전 필수 기초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세금과 공적지원은 생활비 밖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생활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소득·소비·재산 등 일정한 사실에 따라 납부 의무가 생기고, 공적지원은 대상·소득·재산·신청 시점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 부담이나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공제·신고·급여·신청이라는 기본말을 먼저 이해한 뒤 실제 확인 경로를 배웁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세금은 소득이나 거래 등에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체 비용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 급여에서 미리 떼 원천징수액은 최종 세금과 같지 않아 정산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제·환급·공적 지원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증빙·기한을 확인합니다.
- 세율과 지원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국세청·복지로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학습이 지키는 것

- 납부기한과 가산 부담
-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 주거·의료·돌봄의 최소생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출하는 과정
- 변경된 소득·가구상황의 반영

생활안전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순서	무엇을 하는가
1	소득·소비·재산과 가구상황을 확인합니다.
2	세금 또는 지원의 대상·요건·기한을 찾습니다.
3	광고가 아닌 공식 모의계산·상담으로 확인합니다.
4	신고·신청·통지 자료와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각 개념은 뜻만 외우지 않습니다. 생활 예와 반대 예를 대조한 뒤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1 · 세금

법에서 정한 사실과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을 받았을 때만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세목마다 대상·계산·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확인해 봅니다

모든 세금은 같은 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내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세목과 납부기관·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2 · 공제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이나 비용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요건에 맞는 비용을 증빙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공제는 대상·한도·증빙·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3 · 신고와 납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일과 실제로 돈을 내는 일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고만 하면 돈도 자동으로 납부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신고·납부·환급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 있으면 납부도 끝난 건가요?

답과 이유: 아닐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4 · 공적지원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주거·의료·금융 부담을 돕는 지원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가구·소득·재산·위기상황 요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지원은 대상·신청·조사·결정·변경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비슷한 형편이면 모두 같은 지원을 받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가구와 제도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 5 · 기준일과 변경신고

어느 날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달라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취업·이사·가구원 변경이 지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세금과 지원은 적용연도·기준일·변경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소득이 바뀌어도 다음 신청 때까지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답과 이유: 제도별 변경신고 의무와 시점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용어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필요한지와 실제 판단 순서를 생활 사례로 익힙니다.

기초학습 1 · 소득·세금·과세기간

돈이 들어오면 모두 같은 세금을 냅니까요?

세금은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대상에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급여, 사업, 이자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과 거래를 묶는 기간이므로 돈을 받은 날짜와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들어온 돈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 2. 적용되는 과세기간과 납세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 3. 공식 안내에서 신고·납부 의무를 찾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같은 100만원이라도 급여, 사업대가, 예금이자라면 적용되는 계산과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계좌로 받은 모든 돈이 곧 과세소득이라는 생각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금액만 알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기간, 공제와 납세자 상황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기초학습 2 · 원천징수와 최종 정산

미리 댄 세금은 끝난 세금일까요?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액의 선납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공제와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합니다.
- 2. 다른 소득과 공제자료를 모읍니다.
- 3. 정산·신고 결과와 납부·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프리랜서 대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어도 다른 소득과 비용을 반영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세금을 미리 댔으니 신고할 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금은 항상 같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전체 소득과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3 · 공제·환급과 증빙

영수증이 왜 권리와 연결될까요?

공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줄이는 제도이고,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결과입니다. 지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한도·증빙·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서, 납입증명, 영수증 등 공식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가능한 공제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2. 요구되는 증빙을 발급·보관합니다.
- 3. 신청 결과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대상자 관계와 기관, 과세기간 등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환급 광고에 표시된 금액을 확정된 내 돈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공식 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영수증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공제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4 · 공적지원의 대상·신청·변경

어려우면 지원이 자동으로 들어올까요?

공적지원은 소득·재산·가구·위기사유·연령·거주지 등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생활 상황이 바뀌면 자격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와 재확인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내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2. 신청기한·필요서류·담당기관을 찾습니다.
- 3. 결과와 이의절차, 변경 신고사항을 기록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복지로 조회만으로 끝내지 않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 등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 인터넷 모의계산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지원제도는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나 자동 지급될까요?

답과 이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가 먼저 보여 주는 시범풀이

신청하지 않아 놓친 지원

소득이 줄었지만 지원은 자동으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1. 결정: 현재 가구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습니다.
2. 정보: 대상·소득·재산·기준일·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3. 위험: 신청이 필요한 제도를 놓쳐 생활 공백이 생깁니다.
4. 행동: 복지로·지자체 등 공식 창구에서 상담·신청합니다.
5. 기록: 제출자료와 접수·결정 통지를 보관합니다.

공적지원은 존재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조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작동합니다.

기초 이해확인

1. 모든 세금은 같은 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내나요?

확인: 아닙니다. 세목과 납부기관·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나요?

확인: 아닙니다. 법정 조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완료 화면이 있으면 납부도 끝난 건가요?

확인: 아닐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4. 비슷한 형편이면 모두 같은 지원을 받나요?

확인: 아닙니다. 가구와 제도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소득이 바뀌어도 다음 신청 때까지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확인: 제도별 변경신고 의무와 시점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금액만 알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확인: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기간, 공제와 납세자 상황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7.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금은 항상 같나요?

확인: 아닙니다. 전체 소득과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영수증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공제될까요?

확인: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지원제도는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나 자동 지급될까요?

확인: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9개 질문의 뜻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Part 1로 이동합니다. 어렵다면 해당 기초개념을 다시 읽고, EDU-00 공통 기초과정을 먼저 학습합니다.

PART 1 · EDU-09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기초개념을 배운 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다·연습이 필요하다'로 표시한다.

- ☐ 나는 과세기간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나는 '공제'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 ☐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 ☐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 ☐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 ☐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 ☐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0~2개: Part 3과 4부터 천천히 읽는다. 3~5개: 사례에서 결정 이유를 말한다. 6~8개: 가족·동료와 확인 규칙을 공유한다.

PART 2 · EDU-09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세금과 지원을 같은 현금흐름에서 관리하고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한다.

안전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금융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정보의 비대칭, 기록의 부재,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 때문에 커진다. 따라서 이 모듈은 '알기→비교하기→행동하기→기록하기'의 순서를 반복한다.

이 모듈의 핵심 관점

-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신고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다.
- 지원은 어려움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조사·기준일·가구 범위를 확인한다.
- 세율·한도·지원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자료의 숫자보다 신청일의 공식 안내가 우선이다.

PART 3 · EDU-09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용어	생활 속 뜻	확인 행동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	내 계약·거래에서 '과세기간'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원천징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방식.	내 계약·거래에서 '원천징수'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신고	소득·세액 등을 정해진 절차로 세무기관에 알리는 일.	내 계약·거래에서 '신고'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제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빼는 금액.	내 계약·거래에서 '공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체납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	내 계약·거래에서 '체납'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급여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적 지원.	내 계약·거래에서 '급여'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가구	지원제도에서 소득·재산을 함께 판단하는 단위.	내 계약·거래에서 '가구'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증빙	소득·지출·가구상황을 확인하는 문서나 전산자료.	내 계약·거래에서 '증빙'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핵심 사실

[일반 원칙] 원천징수나 중간 납부가 최종 세액과 항상 같지는 않다.
확인할 조건: 소득 종류·공제·신고 의무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출처: 국세청 · 검토일 2026-08-22

[조건 확인] 공제·감면·지원은 대상·증빙·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확인할 조건: 과세기간과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검토일 2026-08-22

[안전 원칙] 세금 일정을 교육자료의 고정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확인할 조건: 납세자 유형별 전자고지와 홈택스 일정을 확인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검토일 2026-08-22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주식·해외소득은 거래와 세금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증권사 화면의 수익과 세법상 손익·환산액·신고 의무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거주자 여부, 자산 종류, 취득·양도일, 환율 적용, 손익통산, 신고·납부 여부를 해당 과세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거래내역과 환전내역을 보관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검토 2026-08-24

https://www.nts.go.kr/tax/yangdo_1.html

구조를 읽는 네 질문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맡기는가?
- 언제 조건이 바뀌거나 의무가 생기는가?
- 손실이 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록과 기한이 필요한가?

PART 4 · EDU-09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단계 비교 카드

1.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2. 연간 세금·보험료·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다.
3. 공식 사이트에서 적용 연도·기준일·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4. 필요 증빙과 발급처를 적고 접수번호를 남긴다.
5. 결과가 다르면 사유와 이의·재신청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숫자 하나가 정답이 아니다. 목적·시점·총비용·최악의 결과·권리·증거가 함께 맞아야 한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법

선택한 안만 적지 말고 제외한 안과 그 이유도 적는다. 나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 이었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확인 시점	보인 정보	선택·제외 이유	다음 확인
결정 전	공식 설명·계약 조건	비용·위험·권리 비교	기준일·기한
결정 직후	거래·서명 결과	예상과 실제 차이	철회·변경 가능성
정기 점검	잔액·청구·공시 변화	계속·조정·종료	다음 점검일

PART 5 · EDU-09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CASE 01 · 환급을 기대한 연말정산

작년처럼 환급될 것으로 보고 소비했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 ☐ B.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
- ☐ C.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권장 선택: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판단의 갈림길: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안전한 선택
B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2 · 부업 소득

플랫폼 부업 수입에 세금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 ☐ B.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
- ☐ C. 입금내역을 삭제한다.

권장 선택: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판단의 갈림길: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안전한 선택
B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입금내역을 삭제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3 · 사업 세금 부족

매출 통장의 돈을 모두 운영비로 썼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예상 세금 몫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 ☐ B. 다음 매출로 막는다.
- ☐ C. 고지서를 피한다.

권장 선택: A. 예상 세금 몫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판단의 갈림길: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예상 세금 몫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안전한 선택
B	다음 매출로 막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고지서를 피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4 · 실직과 지원

온라인 글만 보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 ☐ B.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
- ☐ C.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

권장 선택: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판단의 갈림길: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안전한 선택
B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5 · 부모 부양

부모를 돕느라 본인 가구가 위기인데 지원을 숨긴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 ☐ B. 현금 이동을 숨긴다.
- ☐ C.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

권장 선택: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판단의 갈림길: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안전한 선택
B	현금 이동을 숨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PART 6 · EDU-09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연초: 전년도 소득·지출 증빙과 연간 일정을 정리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2. 사건 발생: 취업·실직·출산·질병·이사 시 관련 지원을 다시 찾는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3. 신청 전: 적용연도·기준일·가구·증빙·중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4. 신청 후: 접수번호·보완요청·결정·이의기한을 기록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활동지 4종 활용

활동지	기록할 내용
연간 세금 달력	소득·세목 · 예상 시기 · 준비금 · 확인처
증빙 목록	문서 · 발급처 · 적용연도 · 보관 위치
지원 확인 질문지	기준일 · 가구 · 소득·재산 · 중복
신청 추적표	접수번호 · 보완 · 결정 · 이의기한

PART 7 · EDU-09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갖출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내가 확인할 권리

- 세금 계산근거와 처분 사유를 확인할 권리
- 홈택스·세무서에서 신고·납부 상담을 받을 권리
- 복지로·고용24·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가능성을 문의할 권리
- 결정 사유와 이의 절차를 안내받을 권리
- 개인정보를 공식 신청창구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공할 권리

권리를 쓰기 위한 다섯 칸

사실	쟁점	증거	요구	기한
누가·언제·무엇을	무엇이 다름	계약·거래·연락	구체적 답변·조치	근거와 확인일

도움 요청 문장

‘저는 ○월 ○일 ○○ 계약·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사실은 ○○이고, 가진 증거는 ○○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조치는 ○○입니다. 적용 기한과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식 확인처

기관	확인 내용	주소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7777&mi=6433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	https://b.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7903&mi=6623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https://www.bokjiro.go.kr/
고용24	고용서비스	https://www.work24.go.kr/

PART 8 · EDU-09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핵심 복습

-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신고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다.
- 지원은 어려움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조사·기준일·가구 범위를 확인한다.
- 서울·한도·지원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자료의 숫자보다 신청일의 공식 안내가 우선이다.
-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 연간 세금·보험료·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다.
- 공식 사이트에서 적용 연도·기준일·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 필요 증빙과 발급처를 적고 접수번호를 남긴다.
- 결과가 다르면 사유와 이의·재신청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사후평가 10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은 별도 평가 세트와 웹 화면에서 확인한다.

1. 생활세금·공적지원·금융복지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 ☐ A.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 ☐ B.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
- ☐ C.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

☐ D.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 ☐ A. 현재 보이는 금액만
- ☐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 C. 광고 순위와 후기 수
- ☐ D. 친구가 선택한 상품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 ☐ A. 기억해 둔다.
- ☐ B.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
- ☐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 D.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 ☐ A.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
- ☐ B.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
- ☐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 D.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 ☐ A.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벌다.
- ☐ B.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
- ☐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 D.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

6. 사례 '환급을 기대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 ☐ B.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
- ☐ C.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7. 사례 '부업 소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 ☐ B.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
- ☐ C. 입금내역을 삭제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8. 사례 '사업 세금 부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예상 세금 뭇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 ☐ B. 다음 매출로 막는다.
- ☐ C. 고지서를 피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9. 사례 '실직과 지원'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 ☐ B.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
- ☐ C.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10. 사례 '부모 부양'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 ☐ B. 현금 이동을 숨긴다.
- ☐ C.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30일 뒤 점검

오늘 바꿀 행동 1개, 확인할 공식 출처 1개, 함께 점검할 사람 1명, 다시 볼 날짜 1개를 적는다.

주차별 실천 기록

주차	확인한 행동·거래	새로 알게 된 사실	다음 주 행동
1주			
2주			
3주			
4주			

부록 A · 내 생활 적용 체크리스트

수업이 끝난 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는 적지 않고 확인 여부와 다음 행동만 표시한다.

점검 질문	확인	다음 행동·날짜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신고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다.	☐	
지원은 어려움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조사·기준일·가구 범위를 확인한다.	☐	
서울·한도·지원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자료의 숫자보다 신청일의 공식 안내가 우선이다.	☐	
연초: 전년도 소득·지출 증빙과 연간 일정을 정리한다.	☐	
사건 발생: 취업·실직·출산·질병·이사 시 관련 지원을 다시 찾는다.	☐	
신청 전: 적용연도·기준일·가구·증빙·중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	
신청 후: 접수번호·보완요청·결정·이의기한을 기록한다.	☐	

한 달 회고

- ☐ 내가 멈춘 위험한 행동: _____
- ☐ 공식 정보로 바뀌 확인한 판단: _____
- ☐ 가족·동료와 새로 정한 규칙: _____

부록 B · 공식정보 확인·변경 기록

한도·요건·기한·기관 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적용 날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적는다.

기관	확인할 내용	확인 날짜·문서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고용24	고용서비스	

변경 이력

날짜	바뀐 내용	영향 받는 Part·활동지	확인자

내용 기준 2026-08-24 ·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긴급한 제도 변경은 정기점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영한다.